



##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1월 후보도서

###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새겨진 한국신화의 비밀》

조철수 지음 | 김영사 | 400쪽 | 값 17,900원

선사시대 유적부터 단군신화, 바리공주, 견우와 직녀, 한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근원을 고대 근동지역의 문화에서 추적한 책. 문헌상에 기록된 두 문화의 유사점을 발견함으로써 우리 역사의 외연을 고대 근동까지 확장시켰다.

### 《기억과 망각》

최문규 외 7인 지음 | 책세상 | 398쪽 | 값 15,000원

기억과 망각이라는 문화학적 주제를 인문학적 차원에서 파악해 보려는 시도를 한 책이다. 문화와 문학의 상관관계, 텍스트라는 문화형식이 끼치는 영향, 기록과 구술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매체가 어떠한 문화적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 《디지털 시대의 영상문화》

최혜실 지음 | 소명출판 | 304쪽 | 값 14,000원

만화·애니메이션·컴퓨터 게임, 광고 등 활자를 뒤흔쳐나온 '스토리'를 고찰한 책이다. '삶 주변의 움직이는 이야기'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영상과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만나는지, 세상의 소통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피고 있다.

### 《몸은 곤궁하나시는 썩지 않네》

송재소 지음 | 한길사 | 318쪽 | 값 13,000원

신라시대 최치원부터 정지상, 김시습, 박지원, 신채호에 이르기까지 한시 작가 17명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새롭게 조명한 책이다. 저자는 수록된 작가들의 개략적인 생애와 함께 그들의 대표적인 시를 새롭게 분석해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를 분석했다.

### 《불량배들》

자크 데리다 지음 | 이경신 옮김 | 휴머니스트 | 326쪽 | 값 18,000원

해체주의 철학으로 국내에 소개된 자크 데리다가 2002년에 강연한 내용을 묶은 책이다. 특히 '해체'를 더욱 실천적인 방향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이번 책에서는 이슬람, 9·11테러 이후의 미국, 국민국가 해체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 《심청》

황석영 지음 | 문학동네 | 상 310·하 334쪽 | 각권 값 8,000원

황석영이 새롭게 쓴 심청전이다. 이 책에서 심청은 인당수에 빠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 '효'의 상징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돌며 몸을 파는 창녀로 설정됐다. 한 여자의 일생을 통해 근대화에 눈을 뜨던 19세기 동아시아 역사를 담은 새로운 소설적 문법을 시도했다.

### 《여의도에서 새만금으로》

김석철 지음 | 생각의나무 | 370쪽 | 값 35,000원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가 김석철의 건축세계 중 도시계획·도시설계를 총정리한 책이다. 여의도 마스터플랜에서부터 새만금 개발 대안론, 황해도시 공동체안까지 담겨 있다. '자연과 상생하는 건축과 도시'라는 저자의 건축철학을 엿볼 수 있다.

### 《역사가 아들을 무죄로 하리라》

박원순 지음 | 두레 | 574쪽 | 값 23,800원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현재 아름다운재단을 이끌고 있는 박원순 변호사가 한국 인권변론의 역사를 정리했다. 일제시기부터 최근까지 자리의 기득권을 버리고 인권을 위해 헌신한 인물들을 살펴봄으로써 어두웠던 한국 현대사를 돌아보고 있다.

### 《창덕궁과 창경궁》

한영우 지음·김대벽 사진 | 열화당, 효형출판 | 286쪽 | 값 40,000원

정궁은 아니었지만 여유로운 생활공간과 주변 환경 때문에 오히려 왕들이 선호했던 창덕궁과 창경궁의 역사와 그 쓰임새를 살피고 있는 책이다. 김대벽의 현장감 있는 사진과 의례, 문집, 왕실 기록화 등 다양한 자료는 한 왕조의 빛과 그늘을 엿볼 수 있게 한다.

### 《총칼을 거두고 평화를 그려라》

박홍규 지음 | 아트북스 | 288쪽 | 값 16,000원

자크 칼로, 고야, 도미에, 루소, 콜비츠, 루오, 피카소 등 전쟁의 참혹상을 고발한 작가의 그림을 한곳에 모았다. 이 책은 전쟁을 고발하고 증언해 민중을 계몽하는 위대한 교사이자 예언자의 역할'을 한 화가들의 생애와 그들의 작품에 담긴 반전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